

# 파리 ‘씨떼 레지던시’ 입주작가에 정유승 선정



정유승 작가

광주비엔날레·가나문화재단 해외 창작 지원사업

여성·노동·기후위기 주제 작업 국제 교류 무대로

여성의 삶과 노동, 지역의 기억을 기록해 온 정유승 작가가 '2026 파리 씨떼 레지던시 입주 작가'로 선정됐다. (재)광주비엔날레는 광주 지역 현대미술 작가의 해외 창작 활동을 지원하는 '2026 파리 씨떼 레지던시 입주 작가 공모' 선정 결과를 4

일 발표했다.

이번 사업은 광주비엔날레와 가나문화재단이 공동 주관하며, 광주를 기반으로 활동하는 현대미술 작가 1명을 선발해 파리 체류 및 창작 활동을 지원한다.

공모에는 광주 기반 미술 작가들이 참여했으며 심사를

거쳐 정유승 작가가 최종 선정됐다.

선정된 정 작가는 오는 10월2일부터 12월28일까지 약 3개월간 프랑스 파리의 씨떼 레지던시(Cite internationale des arts)에 입주해 창작 활동을 펼친다.

체류 기간 동안 주거와 작업이 가능한 스튜디오 1실이 제공되며 문화 공방과 도예 공방, 전시실, 공연장 등 다양한 공동 작업 공간과 부속 시설을 이용할 수 있다.

파리 씨떼 레지던시는 파리 마레지구와 몽마르트르를 거점으로 운영되는 국제 예술가 레지던시로, 총 325개의 스튜디오를 보유하고 있다.

매년 1천명 이상의 예술가가 창작과 교류 활동을 이어나가며 다양한 국적의 예술가들이 함께 소통하는 국제 예술 플랫폼 역할을 하고 있다.

정 작가는 사회 중심에서 밀려나 가시화되지 못했던 여성들의 삶과 흔적을 시각 매체를 통해 기록하고 재구성하는 작업을 이어오고 있다.

대표작으로는 광주지역 성매매 집결지의 변화를 다룬 영상 작업 '집결지의 낮과 밤'(2018), 1980년 광주민주화운동 당시 황금동 여성들을 조명한 '황금동의 여성들'(2018), 전남남방직·일신방직 여성 노동자들의 노동 흔적을 추적한 '고단한 작업 계획'(2022), '나만 잘 버티면 여기가 제일, 내 입장에서 최선'(2022) 등이 있다.

최근에는 여성 농민의 삶을 다룬 '호미장'(2022)을 통해 변화하는 생태 환경과 농촌의 현실을 조명하고 있다.

심사위원단은 정 작가가 지역에 기반한 연구 성과를 기후위기와 젠더 노동이라는 국제적 의제로 확장하려는 명확한 예술적 비전과 시의성을 높이 평가했다.

특히 파리 외곽 지역 여성 농민의 생애와 노동을 기후위기는 관점에서 탐구하겠다는 구체적인 연구 계획과 광주의 목소리를 국제 네트워크 속에서 공론화하겠다는 의지가 선정에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했다고 밝혔다.

윤범모 광주비엔날레 대표이사는 "이번 프로젝트는 광주 지역 작가의 창작 지원과 국제 교류를 위한 의미 있는 사업"이라며 "이번 레지던시가 선정 작가의 창작 활동 지평을 넓히고 광주 현대미술을 세계에 알리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최명진 기자



## 몸과 사물 사이, '집'을 다시 바라보다

정혜성 개인전, 7일까지 예술공간집

집은 단순한 거주 공간을 넘어 몸과 사물, 기억이 만나는 장소다. 오랫동안 탐구해온 '경계'와 '관계'의 감각을 '집'이라는 가장 사적이고 친밀한 공간을 통해 풀어낸 전시가 마련돼 눈길을 끈다.

정혜성 작가 개인전 '사이의 집 La maison de l'interstice'가 오는 7일까지 예술공간집에서 열린다.

그는 실·천·빛·종이·사물 등을 활용해 공간 안에서 발생하는 감각의 흐름과 존재 간의 관계를 드러내는 작업을 이어오고 있다. 전시 제목인 '사이의 집'은 물리적인 공간을 넘어 서로 다른 감각과 존재가 교차하는 중간지대를 의미한다.

작가는 집 안에서 피부와 맞닿는 사물과 빛, 그림자, 흔적 등을 관찰하며 인간과 사물 사이의 관계를 사유한다. /최명진 기자

## 同人선생의 易經 강좌

〈제62강〉 15. 지산겸(地山謙)下

겸괘 육사의 효사는 '무불리, 휘겸(无不利 撝謙)'이다. 즉 '이롭지 않음이 없다. 겸손의 미덕을 거둬 발휘하고 베풀어야 한다'는 뜻이다.

겸지소괘(謙之小過 四動)	
지산겸	뇌산소괘

사효는 음위에 음효로 유순득정(柔順得正)하다.

상괘에 있지만 하괘 아랫사람들에게도 자신을 낮추는 덕성을 갖추고 있다. 문제는 육사의 공로가 구삼에

미치지 못하는 불구하고 구삼 위에 있다는 점이다. 그러나 육사는 겸양의 덕성을 발휘하는 훌륭한 인물이기 때문에 이렇게 생각하지 않는다. 육사는 공손하고 두려워하는 자세로 육오의 군주를 받아들여야 하고 또한 낮고 공손한 자세(卑巽)로 구삼의 노겸한 신하에게 양보할 줄 아는 겸양의 미덕을 발휘하니 이롭지 않음이 없는 것이다.

음효가 음위(陰位)에 바르게 있고, 임금 옆에 있는 겸료로서 자기를 낮추고 남을 올리는 겸을 행하는 이것이 '휘겸'(撝謙)이다. 상전에서는 '이롭지 않은 바가 없고 겸손의 미덕을 베풀어야 한다는 것은 상도의 법칙을 어기지 않은 것'이라고 해 '무불리휘겸 불위족야'(无不利撝謙 不違則也)라고 말한다.

육사는 하층부를 지휘하고 육오 군위를 보좌하는 자리이기 때문에 겸덕을 발휘해 육사가 추천하는 것이 바로 양(陽)의 구삼이다.

효사의 '무불리 휘겸'은 엄지손가락 하나가 네 손가락에 모두 낮춰서 감싸 안는 것이다. 네 손가락이 모두 낮춰야 하므로 사효가 삼효를 등용하는 일 등에는 좋다.

일상사에서 사효는 좋지 않다. 나를 낮춰서 남을 위해 하야기 때문이다. 대표 손가락 하나가 넷을 위해 희생해야 한다. 감싸고 있는 넷에게 겸(謙)을 해야 한다. 그러므로 장사하는데 있어서는 좋지 않고 내가 이득을 구하는 일은 어렵지만 구삼을 따라가서 하는 일은 괜찮다.

사효도 남을 위해 헌신하는 일은 좋다. 사업 여하점에서 사효를 얻으면 어렵다. 승진은 내가 승진하고자 하는 것인데 사효가 나오면 나를 낮춰야 하기 때문에 다른 사람을 밀어주고 자신은 되지 않는다.

육사는 현자(賢者)인 구삼의 위 상괘에 있으나 음위에 음효로 운기는 쇠퇴해 떨치지 못하기 때문에 인망(人望)이 모이고 있는 하위 구삼인 현자를 발탁해 육오인 인군에게 천거(薦擧)하려는 것이다. 이를 '무불리 휘겸'이라 한 것이다.

점사에서 겸괘 육사(《각주=허락이수(河洛理數), 세운(世運)에서 육사를 만나면, 통하지 않는 바가 없으나 다만 사농공상은 마땅히 고수하고 퇴양(退無所不通 但土農工商 宜固守謙/무소불통 단사농공상 의고수퇴양) 대개 소과로 일변하며 가만 위태하니 반드시 경계해야 한다(蓋一變小過 往屬必戒/개일 변소과왕러필계). 이를 쓰지 않으면 또한 나직이 될 것이며, 그렇지 않으면 손해를 취한다(勿用此亦當舉約 不然取損害爾/물용차역당약 불연 취손해이/爾 나. 어조사)》를 얻으면, 무슨 일에서나 자신을 낮추고 남을 밀어 좋은 결과를 얻을 때이다. 높은 지위를 얻지 못한 현인이 하위(下位)에 있으면서 인망(人望)이 많은 사람을 모이게 하는 때로 힘 있는 사람들을 발탁한다. 유능한 사람과 교유하고 능력 좋은 사람의 도움을 받아 더욱 좋은 관계를 형성해 나간다.

재운(財運)은 부동산과 관련 있다. 사업이나 신규로 시작하는 일은 보류하고 뒤로 물러서서 지켜야 할 운기이며 이전이나 전업은 불가하다. 시험이나 선거 등도 자신은 사퇴하고 다른 후보자를 추천하는 것이 후일에 대성(大成)하는 원인이 된다. 거래나 경영 등에 있어서는 자신보다는 유능한 부하를 대리시키는 것이 좋다. 바라는 일은 대개 통달하지 못하고 강

하게 바라보면 오히려 장애를 초래한다. 혼인은 순조롭게 진행되지 않고 혹 성혼(成婚)이 돼도 좋은 인연은 아니며 상대방은 오히려 동성(九三)을 탐내고 있다. 임태는 어려우며 순조롭지 못해 과출혈(變大坎) 등을 주의해야 한다.

기다리는 사람과 분실물은 허망하게 나타나지 않고 좋지 못한 물건이 대신 들어올 수 있으며 가솔인은 멀리 떠나고 한 곳에 머물지 않아 찾기 힘들다. 병은 발이나 허리가 불수(不隨)이거나 뼈 마디마디의 통증을 동반하고 과로, 출혈 등으로 쇠약을 초래해 오래 끌고 낮기 힘든 병이다.

'모인의 운기 여하'의 '실절에'에서 육사를 얻고 점고하기를 '육사는 구삼과 육오의 사이에 있어 현명한 재주를 가지고 인망(人望)이 많이 따르는 사람(구삼)과 접해 사귀고 있고, 존귀한 사람(육오)과 친해 가까이 하는 사람이다.

이를 허락이수에서 '친근존귀 교접현제(親近尊貴 交接賢才)라고 말하고 있다. 그러나 육사는 음위에 음효가 있어 운기는 쇠퇴하고 떨치지 못하는 상태다. 따라서 자신이 나서기 보다는 명망있고 능력있는 인재를 발탁 등용(九三)해 자신의 주군인 육오를 보좌하는 것이 길하고, 자신의 문제도 구삼과 같은 유능한 아랫사람의 도움으로 문제를 풀어야 한다'고 말했다.

겸괘 육오의 효사는 '불부이기린, 이용침벌 무불리'(不富以其鄰, 利用侵伐 无不利), 즉 '부를 부로 여기지 않고 부로써 위세를 과시해 이웃사람들과 함께 하려 하지 않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항하는 자가 있다면 침벌하는 것이 이롭고 이롭지 않음이 없다'는 뜻이다.

겸지간(謙之蹇 五動)	
지산겸	수산건

오효는 양위에 음효로 유순(柔順)하고 겸양의 미덕을 갖춘 훌륭한 군주이다. 자신의 부를 자랑하지 않고 위세를 과시하지 않는다. 이러한 까닭에 모든 사람들이 오효의 겸양의 군주에게 물러든다. 부귀보다는 겸양의 미덕 때문이다. 이러한 인격을 갖춘 군주에게 저항하는 세력이 있다면 정벌을 감행해도 이롭고(利用侵伐), 겸양의 덕성을 갖춘 자(六五)에게는 이롭지 않음이 없다(无不利).

육오는 군위의 자리인데 음(陰)이어서 힘이 없고 유약하다. 또한 군위를 보좌하는 육사도 겸덕을 발휘하는 사람이어서 겸덕만 가지고서는 군(君)에게 봉사할 수 없다. 더욱이 변괘가 수산건(水山蹇)으로 어려움에 처하게 되니 건괘(蹇卦)의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싸워서 정벌하는 것이 필요하다. 따라서 겸덕으로 가만히 있지 말고 나아가 싸우라는 것이다. 그래서 오효를 만나면 싸움을 하는 등 시끄러운 일이 생긴다. 효사에서 이를 '이용침벌 무불리'라 했으니 싸워서라도 어려움을 해결해야 한다.

상전에서도 '침벌함이 이롭다는 것은 복종하지 않는 자를 정벌하는 것'이라고 해 '이용침벌 정불복야'(利用侵伐 征不服也)라고 말한다.

또한 육오는 자기보다 돋보이고 능력있는 구삼이 싫기 때문에 구삼을 제쳐두고 육사, 상육과 의논해 위사람들끼리만 해먹기 쉽다. 그러나 이는 잘못이다. 구삼의 노겸의 능력이 인정되지 않으면 꽤 전체가 침체되고 무너지고 많다. 그래서 효사에서 육오는 육사나 상육 등의 이웃과 부지가 되지 않아야 한다(不富以其鄰)고 말한다.

육오의 때에는 겸손한 도를 행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믿지 않고 따르지도 않는 포악(暴惡)한 자는 무력으로 정벌해

야 한다. 겸손함을 베풀어 사람들에게 신망을 얻지만 위엄을 잃어서는 안된다. 그래서 이를 이용침벌 무불리(利用侵伐 无不利)라고 말하고 있다.

점사에서 서쪽을 들어 육오(《각주=허락이수(河洛理數), 세운(世運)에서 육오를 만나면 벼슬한 자는 문무를 겸해서 쓰며 혹은 병권과 형권을 맡는 대(則文武兼用或掌兵刑/죽문무겸용 옥장병형), 선비는 과거에 발할 장수가 있다(則有發科之光/죽유발과지조). 일반인은 귀한 이(九三)를 만나 일을 이룬 즉, 이익이 배로 얻어지며 또한 주로 쟁송을 한다(常人遇貴成事 則利倍蓰又主爭訟/상인 우귀성사 죽이배취 우쟁송)》를 얻으면, 모든 일들이 상당히 어려운 상황에 놓여있다. 적극적으로 나아가려 하는데 기초가 부족해 희망이 없고, 소극적인 태도를 보이면 다른 사람들로부터 무시를 받아 쇠퇴의 길로 나아가니 여러 가지로 신고간난(辛苦艱難)이 크다. 따라서 가까이 있는 사람이나 친척들의 도움과 원조를 받아야 할 때이다.

사업, 거래, 지방 등은 진퇴양난이고 자력결핍이니 굳은 마음으로 때를 기다려야 하고 마음을 밖으로 두기 보다는 내부 통제에 전념하는 것이 좋다. 여자 주인공이기 때문에 무시 받는 상이니 나아가면 손해고 재산을 잃는다. 당연히 이전, 전업도 안된다.

혼담은 좋아 보여도 성사되지 않고 이뤄져도 부부우화를 잃는다. 임태도 어렵고 출산이 어려우니 의사의 대기가 필요하다. 기다리는 사람, 가솔인, 분실물 등은 오지 않고 찾기 힘들다. 병은 가슴, 비장, 신장부위 이상, 보행곤란 등으로 외과적 수술이 필요하거나 치유의 희망이 어렵다.

'실절에'로 방화벽 제조업자가 전정으로 인해 자체 공급이 어려워 '다른 사업으로 전향하고자 자금조달 가능여하'를 문점해 겸괘 오효동을 얻고 다음과 같이 점고(占考)했다. 상괘는 투자자, 하괘는 투자를 받고자 하는 사람으로 문점자이다. 그런데 자금조달은 불가하다. 그 까닭은 투자자인 겸괘의 상괘 곤괘는 '마무리가 안 되는 사람'인데 더욱 어려운 '고뇌(苦惱)의 상'인 건괘(蹇卦)로 변했고, 투자자는 '생각해서 멈추는 건괘(艮卦)'이며, 겸괘의 호괘(互卦)로 뇌수해(雷水解)괘는 오래된 어려운 해결되나 새로운 일은 불가하고 상괘가 곤번감(坤變坎)해 감소로 변한 것은 실제로 투자자는 돈을 출자할 능력이 없다고 볼 수 있기 때문이다. 또한 겸괘의 오효의 효사(爻辭)에서도 '불부이기린 즉, 이웃과 함께 부(富)하지 않는다'고 했기 때문이다.

겸괘 상육의 효사는 '명겸, 이용행사 정음국(鳴謙, 利用行師 征邑國)'이다. 즉 '겸손한 이름이 널리 울려 퍼진다. 군사를 동원해서 나라 안의 복종하지 않은 자를 정벌하는 것이 이롭다'는 뜻이다.

겸지간(謙之艮 上動)	
지산겸	간위산

상효는 음위 음효로 위가 바르다. 음효로 괘의 끝에 있어 곤순(坤順)의 극치의 자리이다. 군위에서 물러난 상황(上王)으로 겸손의 극에 이르니 상육 겸손의 덕성이 사방에 울려 퍼져 모든 사람들이 심복(心腹)한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이에 불복한다면 음효의 위치에 있는 구삼의 도움으로 군대를 일으켜 영지내에 있는 음국을 정벌해야 한다. 육이의 명(鳴)은 나는 겸손하지만 모든 사람들이 내가 똑똑하다는 것을 알아주는 것인데 반해, 상육의 명(鳴)은 내 스스로 잘났다고 하는 명이다. 겸괘의 명(鳴)이 극(極)에 달해 불손(不遜)으로 변하는 조짐이 있다.

따라서 상육은 음효(應爻)이면서 성괘주인 구삼의 노겸군자(勞謙君子)와 마음을 합쳐서 겸의 도(道)에 전력하면서 불손한 불복자(不服者)를 정벌하지 않으면 안된다.

이러한 연유로 효사에서 '군사를 행해 음국을 정벌하는 것이 이롭다(利用行師 征邑國)'고 했고 여기서 '음국'은 외국이 아닌 국내의 부락이나 현성(縣城)을 말하고 음국을 정벌하기 위해서는 국민의 존경을 받는 임료를 등용하는 것이 좋다.

상전에서도 '겸손하게 울린다는 것은 아직 뜻을 얻지 못함이니 군대를 출동해 음국을 정벌해야 한다'고 해 '명겸 지미 득야 가음행사 정음국야'(鳴謙 志未得也 可用行師 征邑國也)라고 말한다. 이때는 말로 해도 안되니 칼을 뽑아 들어 처단함으로써 법을 집행하는 등 사정의 칼날, 전쟁, 속청해야 하는 시기이다.

점사에서 서쪽을 들어 상육(《각주=허락이수(河洛理數), 세운(世運)에서 상육을 만나면, 벼슬한 자는 반드시 전권장군으로 정벌의 권세가 있다(必有關征伐之權/필유군지정벌지권/屬 문지방 권) 선비는 소시에 이로워 명예는 점점 나타난다(則利於小事 而名譽稱彰/족이어소서 이명예초창/彰 나타날, 밝을 창). 서쪽은 숭사하는 어지러움이 있으나 밝히지 않아도 스스로 밝혀지니 기미를 알면 손을 면한다(有爭訟之機 不辨自明 知幾免損/유쟁송지오 불분자명 지기면 손/機 어지러움 요. 당관자는 귀히더러도 청심으로 근본을 삼아야 바야흐로 후회를 면한다(當官自貴 以滿心事爲本 方免其悔/당관자귀 이청심사위본 방면기회)》를 득하면, 미리 타개책을 강구해 의심이나 분쟁을 해결해야 할 때이니 고생이 많고 평안을 바랄 수 없는 운기다. 말로 해도 안되니 무력으로 해결해야 하는 때이다. 상육이 구삼을 겸손하게 달래야 하는데 설득이 안되면 무력을 동원해 구삼을 정벌 응징할 수밖에 없다.

사업, 거래 등은 내부 분란이 생기는 것을 방지해야 할 때이고 신규로 시작하는 일은 결코 안된다. 지망하는 일도 등 뒤에서 방해하려는 자가 있기 때문에 방해자를 제거하는 것이 먼저다. 이전, 전업은 포기하는 것이 낫다.

혼담은 변괘가 일가가 두 개의 집 문이 나뉘지는 상으로 부부 화합을 얻기 힘들고 임태도 어려워 늦어지는 난산이니 의사의 도움이 필요하다. 기다리는 사람, 가솔인, 분실물은 변괘가 간위산이니 돌아오지 않고 찾기 힘들다. 병은 두통, 마비, 골절수술 등이고 성병이 원인인 경우가 많으며 근치(根治)가 어렵다.

국가로부터 부름이 있는 '모인의 운기 여하'를 물어 상육을 얻은 '실절에'에서 다음과 같이 점고했다. '겸괘는 산이 높으니 낮은 땅으로 내려오는 궤다. 인사(人事)에 비유하면 큰 공적이 있는 사람이 높은 자리를 버리고 낮은 위치로 내려오고 관작(官爵)을 사퇴하고 재야(在野)에 숨어 세상 사람들에게 겸양의 덕을 베풀어 인망이 모이고 있다. 그리해 국가로부터 부름이 있으나 간산으로 움직이지 않아 부름에 응하지 않아 그 의(底意)를 의심 받아 불충(不忠)을 면하지 못하고 상육은 이용행사(利用行師)해 정음국(征邑國)하니 결국 속청되고 말 것이다'고 해 결국 그렇게 됐다.

【동인선생 강좌개설안내(062-654-4272)】

- 개설과목(2): 명리사주학, 역경(매주토, 일요일)
- 기초이론부터 최고수준까지 직업전문기양성

